

고용노동부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감독을 추진해나가기로

- 20명 규모 수사전담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중점 수사 중

고용노동부는 6월 2일(월) 한국서부발전(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이하,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6월 9일(월) 15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철저한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본부·지방관서의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부서, 중대재해 수사 부서로 구성했다. 향후 사고대책본부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사고대책본부 구성 〉



오늘 회의에서 사고대책본부는 태안 화력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 발전 5사(社)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감독 대상·범위, 감독반 구성, 감독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속한 감독·수사를 진행하고자 본부-지방 합동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오늘 논의를 토대로 감독 계획을 조속히 확정,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총 20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다.

수사전담팀은 사고 당일 실시한 합동감식 결과, 기 확보된 CCTV,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심층 확인하는 한편, 방호장치 설치 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2인 1조 작업 규정 마련·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수사자료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책임자	과 장	이경제	(044-202-8950)
		담당자	서기관	용운서	(044-202-8951)
			사무관	이호준	(044-202-8952)
			사무관	이대경	(044-202-8953)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온남이	(044-202-8902)
			사무관	이재화	(044-202-8914)
담당 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책임자	과 장	이준행	(042-480-6302)
		담당자	팀 장	최병희	(042-480-6306)
담당 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산재예방지도팀	책임자	팀 장	이승기	(041-661-5626)
		담당자	근로감독관	정태운	(041-661-5644)
담당 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책임자	과 장	연현석	(042-480-6351)
		담당자	팀 장	박인채	(042-480-6361)
담당 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책임자	과 장	강동섭	(041-560-2970)
		담당자	팀 장	최 민	(041-560-2977)